

설교문

‘한가위’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바로 송편입니다. 보름달을 반으로 접어서 그 가운데 곡식을 집어넣어 풍요로운 열매를 주신 자연과 조상에게 감사한 마음을 되새긴 것이 그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가위의 이미지는 한마디로 ‘감사’입니다. 애쓰고 땀 흘려 농사를 짓지만 그 결실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 이루어짐을 아는 것이 바로 한가위의 감사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감사의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1.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13절)

본문 13절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결실의 절기인 추석을 맞아 성도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전체에 184번이나 감사라는 단어가 쓰여 있고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감사라는 단어가 7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35번이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감사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이 같은 내용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감사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가족 모두의 감사가 선포되는 예배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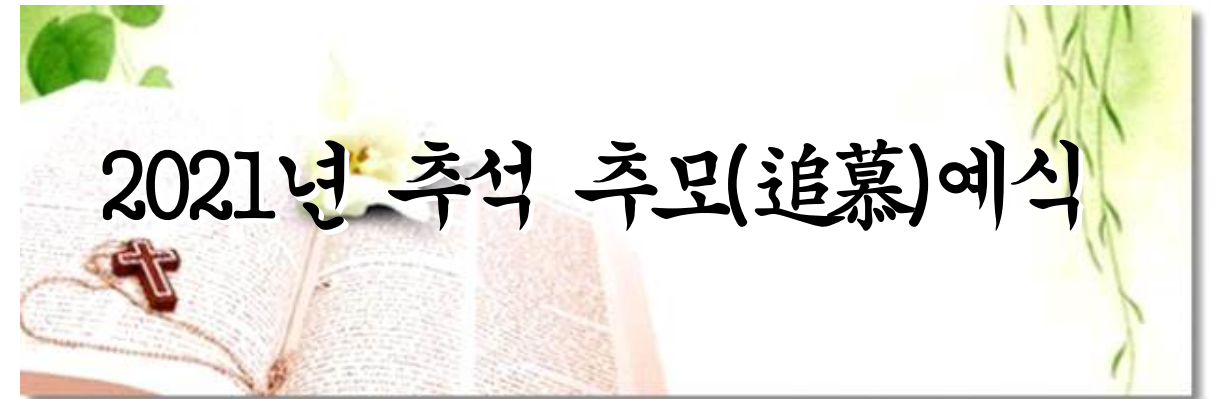
2. 받은바 은혜를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14절)

본문 14절을 오늘날 말로 번역하면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과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잔치하며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봉사를 통해, 이웃 섬김을 통해, 가진 것을 나누며 흘려보내며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누리는 기쁨에서 멈추지 않고 나누는 기쁨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추석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그 속에서 사랑과 복음이 흘러갈 것이며 많은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3. 받은바 은혜의 복을 헤아려야 합니다.(17절)

본문 17절을 보면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초막절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2021년 올해도 각종 재난과 전염병으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피폐한 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셨고 우리의 건강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으며, 진리가 혼탁해 진 시대의 민낯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온통 은혜로 가득합니다. 찬송가429장의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는 우리 가좌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은혜의 한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그릇을 뒤집어 놓고 있는 상황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할 지라도,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며 기억해 내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추석은 수확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명절입니다. 받은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받은바 은혜의 복을 헤아려 보며, 받은바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추석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

2021년 9월 21일(음력 8월 15일)

예식사 인도자

오늘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먼저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선조들을 추모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435장 다함께

1.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3. 어둔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 말은이

성경봉독 신명기 16:13~17 다함께

- [13]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 [14]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 [1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 [16]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일 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뵈옵지 말고
- [17]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말씀선포 ‘하나님 자녀들의 추석맞이’ 인도자

주기도문 다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추 모 사 말은이

(선친들의 행적이나 성품, 유훈, 인상 깊었던 일 등을
자녀들이 미리 준비하여 차례로 짧게 말하며 나눈다.)

